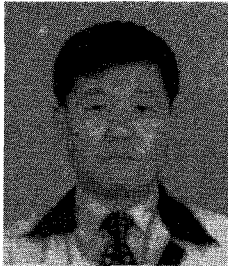


계약사육 비율 70% 이상 증가, 사육농가 생탈전 양상은 배제되어야...



고 도 육
(체리부로 GP사업부 상무)

2001년은 세계 최강국이라 칭하는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세계 무역회관의 비행기 폭파테러 사건은 하나의 문화적 충돌이라고 하지만, 영웅심리에 의한 무모한 테러인 것이다. 수많은 인명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생을 달리했으니 말이다.

국내적으로 정치·사회도 서로 동·서로 양분되어 극도로 혼란한 상태였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어려웠던 한 해였다.

축산업은 영국의 비육우에서 광우병 발생으로 먹거리의 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었다.

올해의 국내 육계산업 부문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지난해 4/4분기에 육계 경기불황으로 구조조정을 기대하던 중 올해 년초(1월 8일)에 경기 남부, 충남·북 지역의 폭설로 열악한 축사를 가진 영세한 육계와 종계업자가 삶을 영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태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는 종계업자도 있었다.

어떻게 보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었는지 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구조 조정되어 초생추와 육계가격이 상승되었다.

육계업계가 서로 승리하는 경영을 영위할 수는 없는 것일까?

올해 육계산업 각 분야별 현황을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 보고자 한다.

1. 원종계(GPS) 현황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육중인 원종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올해의 원종계 수입 수수는 표1과 같다.

전년대비 올해의 원종계 수입수수는 20% 이상 증가되어 내년도(2002년) PS 수입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GPS 품종별 수입현황

품종	수입수수	비율
RO	60,000	54%
PT	22,000	20%
AA	15,000	13%
CO	15,000	13%
계	112,000	100%

2. 종계(PS) 현황

올해 종계 입추수수는 지난 1996년도 이후 5년만에 다시 400만수 이상을 입추하게 되어 내년도 육용실용계(CC) 생산은 원활한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현 상황이 좋으니 그때가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사육중인 종계장은 거래형태에 따라 종란을 계열업체 및 대형 부화장에 납품하는 전문 종계장과 종계사육과 종란을 부화하여 초생추를 판매하는 종계장으로 나눌 수 있다.

올해 전문 종계업자는 이상기후인지, 질병인지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생산성 저하로 오히려 수익이 감소된 반면에 부화장은 초생추 가격의 상승으로 경영이 호전되었다.

초생추 거래는 계열업체에 일정수량 및 일

정단가, 변동단가를 적용하는 계약납품과 유통업체 및 일반농가에 시세로 적용되어 판매하는 일반 납품의 두가지 거래가 있다.

3. 육용실용계(CC) 현황

생산된 육용실용계는 육계농장의 계약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계열업체 위탁사육

계열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약 70%를 차지하며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육계 사육규모 4만수 농가의 년 5.5회전을 사육한다면 조수익이 연간 8,500만원 정도인데, 이 중 깔짚비, 약품비, 연료비, 전기료 등 지출비용을 제외하면 년 약 5,000만원 이상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한 연속 입추로 인한 육계 생산성의 저하를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다.

2) 유통업체 및 사료대리점 위탁사육

흔히 유사계열업체(유사인티)라고도 하며, 전체 사육 중 약 15%를 차지한다. 경기상황에 따라 입추가 되므로 연간 회전수가 적고, 수료는 생계시세에 의해서 지급하므로 정확한 연간 수익을 예측할 수가 없지만,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다.

3) 개인사육

사육농가가 직접 부화장이나 유통업체에서 초생추를 구입하여 사육하는 방식으로 약 15%를 차지하는데 올해는 초생추 구입이 원활치



못했고, 출하시기에 시세가 하락할 경우 출하를 못하는 관계 등 생계시세는 좋았지만 년평균 수익은 각 농가별 수익성 차이가 많았다.

4. 계열업체 현황

현재 계열업체는 총 10개사와 농협중앙회 목우촌, 전북양계조합, 대구경북양계조합, 충북양계조합으로 되어 있다.

시장 점유율로 보면 25%를 점유하는 대형업체가 1개사가 내년도 경북 상주의 도계장을 추가 설립(일일 15만수 도계가능)하여 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5-10%를 차지하는 회사가 4개사, 그외 5%미만이 5개사가 있다.

올해 각 계열사들은 상반기에는 사육농가

쟁탈전으로 치열하였고, 후반기에는 초생추수습문제로 애로사항이 많았다.

익년에는 각 계열사의 생산성 증대, 규모 확장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종계, 육계,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양계협회와 계열업체를 중심으로 한 계육협회가 자조금 문제로 이전투구 양상으로 다른 축종에서 볼 수 없는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매출규모로 본다면 원종계의 종계시장은 약 100억 매출, 종계부화에서 약 1,800억원, 육계에서 약 9,000억원 매출로 육계산업의 총 매출입은 약 1조 900억원이다.

서로의 사업영역을 이해하고 협동 단결하여 이전투구하는 모습보다는 한층 조화롭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면 한다. **양계**